



정계政界에 네트워크를 쌓다

우방 미국과 굳은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정부 관계자는 물론 의회 의원, 조야 인사, 언론인들과의 긴밀한 접촉과 유대가 필요했다. 윤정은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행정부, 군부, 의회 등 당시 한국 관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거물급 인사들과 만나 국내외 현안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력을 받아냈다.

"키신저가 '괴짜' 라고 놀렸죠."

1964년에 미국 정부가 주선해줘서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의 '키신저 특별코스 과정'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이 코스는 6개월 과정이었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 50여 명이 자리를 같이하여 저명한 정치학자(후에 미국 무장관) 키신저 박사의 명강의名講義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난 어느 날 키신저 교수는 하버드 대학은 200년 이상을 자랑하는 명문 대학인데, 일찍이 유례가 없는 이상한 학생 아닌 학생 하나가 끼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배당된 연구실에 티셔츠 한 벌만을 걸어놓고 거기에 있지 않은 유일한 이단異端 수강생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워싱턴에 자주 드나들고, 강의실에 올 때는 보디가드를 둘이나 양 옆

에 앉히고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괴짜가 있는데, 마침 오늘은 저기 앉아 있으니 수강생 여러분 저 괴짜를 한 번 보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모두 폭소를 자아냈죠.

'키신저 교수님, 내 옆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은 보디가드가 아니라 제가 워싱턴에 가서 하는 일에 필요한 통역관'이라고 했죠. 일은 중요하고 저의 영어는 서투르니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같이 다닌다고 했어요. 그때 하버드에 머물렀던 반년 동안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미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 특히 닷드 위원장(코네티컷 주 출신)을 만나 한국군의 월남파병越南派兵 문제를 상의하고, 전체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보스턴과 워싱턴을 내왕했죠. (2006. 7.11 이코노미스트)



1973.7.19 안양 컨트리클럽에서 김용식 외무장관이 주최한 로저스 미국 무장관 초청 골프 모임.



1971.11.2 미 재무장관 고넬리와 벙커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1975.8.27 술레진저 국방장관이 내한하여 총리실을 예방,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서종철 국방장관.



2001.5.26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과 선물 교환. 다음 날 골프를 함께 치며 평소 두터웠던 우정을 나누다.



1972.3.2 마셜 그린 차관보와 환담하고 있다.



1971.8.11 미하원의장 알버트와의 환담하고 있다.



1989.2.9 로스앤젤레스 시청을 방문, 톰 브래들리시장과 환담하고 있다.



1980.1.15 홀브르크 차관보 일행의 예방을 받고 있다.



1963.2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부터 '행운의 열쇠'를 받고 있다.



1989.2.7 솔라즈 의원과 환담하고 있다.



1989.6.2 밥 돌 상원의원과 환담하고 있다.

1989년2월 미국 방문에서는 특히 한국에 많은 영향력을 가진 의회 여야 지도자들과 많은 접촉을 갖고 남북관계, 인권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교분을 넓혀 나갔다.

"한일회담은 미국으로서도 승리다"

"처음부터 하버드 대학의 키신저 클래스에 적籍을 두고 뉴욕과 워싱턴을 돌아다니면서 로비활동을 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과 정부 관리들을 만나서 내가 이랬습니다.

"한일회담은 미국으로서도 승리다. 소련과 중공의 막강한 뒷받침을 받고 있는 북한을 제쳐놓고, 일본이 남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국교정상화國交正常化 회담을 하는 것은 당신네들한테도 승리가 아니냐. 그러기 위해선 당신네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러니 일본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

"배고픈 사람에게 민주주의는 억설"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면 한국민이 보릿고개를 넘도록 도와줘야 한다. 한국민이 제일 넘기 힘든 고개가 보릿고개다. 배고픈 사람은 상종相從을 말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 논법論法으로 한다면 배고픈 사람이 민주주의 한다는 건 억설臆說이다. 그런 소리는 학교 마당에서 꿈꾸는 소리야. 배고픈 사람은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 우리 국민이 보릿고개를 잘 넘기지 못하

면 한국의 정정政情이 불안해진다. 그런데 당신네 정부는 PL480호에 따라 잉여농산물剩餘農産物을 지원 해주면서 필요한 보릿고개에는 보내주지 않고 엉뚱한 때에 보내줘서 불필요한 때 소비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 이걸 좀 시정해달라.'

"월남 파병은 6.25때 도와 준 은혜 갚는 것"

내가 미 상원 도드 외교분과위원장과 상하 양원兩院 의원들을 만나서 (월남 파병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6.25 때 당신들과 자유우방이 우리를 도와준 은혜를 갚고 싶다. 또 월남 파병을 하게 되면 우리 군이 반공전선에서 실제로 훈련도 하면서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는 인식도 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의 궁지 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플러스가 될 것이다. 당신네들이 제2의 유엔군을 편성하자고 세계에 호소해도 응하는 나라가 없지 않느냐." 내가 그 사람들과 이런 주장을 하면서 두세 번 접촉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서 미 대사관측이 우리 정부와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처음엔 의료요원, 공병요원이 나가는 단계를 밟아서 본격적인 전투부대를 보내게 된 겁니다.



Dr Kim. With Best Wishes
On your visit to Washington D.C.
- Bob Michel
G.S.S. Alash

1989.2.1 머코스키 의원과 환담하고 있다.



MEETING WITH HOUSE MINOR
LEADER, ROBERT MICHEL
2/02/89
To my new friend J.P. Kim. I hope you will consider this picture as "preaching
to you, but rather making a point on a matter of mutual interest. It was
good to meet you and have a most pleasant dialogue. Sincerely, Bob Michel

1989.2.2 마이클 공화당 원내총무와 환담하고 있다.



1964년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미국 하원 존 머피 상공위원장
부부와 함께 만찬을 나누었다.



1975.4.2 방한한 도널드 프레이저 미 하원의
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
서 프레이저는 "민주화를 필리핀·파키스탄
한테서 좀 배우라"고 충고했고, 윤정은 "민주
주의를 지탱할 경제력이 없는 나라가 무슨 민
주주의를 한다는 말이냐"고 받아쳤다.

JP를 민족주의자로 잘못 본 미국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날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되었어요. 그건 미국식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후진국의 애국자들을 -애국자라는 데 나를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고- 민족주의자니 뭐니 해서 사상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 하자는데 내가 고분고분하지 않았어요.

서로 덮어두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장 면張勉 민주당 정권을 옹호하는 작용들이 있었어요. 미국 쪽으로부터였지요. 나는 미국과 손잡은 그 세력들을 모아서 김포공항으로 데려가 국외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사무엘 버거가 그 후에 월남대사로 가 있었어요. 내가 월남서 그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1961년과 62년 그 당시에 나를 제대로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어떡냐.’고 하니까 ‘이젠 잘못 보지 않겠다.’고....

그렇지만 미 대사관에서 본국에 보고한 것은 과장誇張이나 거짓말을 한 것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朴 대통령에 압력을 가해서 내가 정치에서 손을 떼게 하려 했다는지 하는 부분들이 그래요.

“아무튼 자기들끼리 나에게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것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이지만, 1964년에 하버드에 갔는데 자기들이 별별 편의 제공을 다해줘서 미국 국내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산업시찰을 했어요. 아마도 나를 반미주의자反美主義者라고 봐서 순화醇化하려고 했는지는 모르나 난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토가 양단兩斷 되는 원인은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지요. 소련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라서 작전상 편의便宜로 한 것이지만, 이게 한 국가의 민족을 분해分解하게 만든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걸 지적했어요.

그러나 공산군이 쳐들어 왔을 때 우릴 도와주었어요. 그 후에도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혁명을 했으니 나를 보고는 ‘참 곤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법해요.



1980.1.8 미 하원 올프의원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가운데는 글라이스틴 주한 미대사.

‘자의반타의반’ 自意半他意半으로 시작된 외유外遊

■ 1차 외유 (63.2.25-10.23)

“이 나라에 새 질서를 확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신념에서 민주공화당 창당을 위해 산파역을 맡고 나섰으나, 이 시간부터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나 기꺼이 초야의 몸이 되겠다” 1963년 2월20일 김종필위원장은 공화당 창당과 관련된 내부 갈등에 책임을 지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일체의 공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어 공화당 창당 하루 전인 2월25일 1차 외유를 떠나게 된다. 출국하는 공항에서 “이번 여행은 나의 희망 반, 외부의 권유가 반이었다” 고 언급하여 이를 동아일보 이만섭기자(전 국회의장)가 당시 시중에서 일대 유행어가 된 ‘자의반 타의반 自意半 他意半’ 외유라는 수식어를 만들어 냈다.



1964.6.18 2차 외유를 마치고 귀국

이번 외유는 장장 10개월 간에 걸쳐 아시아, 중동, 유럽, 남미, 미국 등 20여개국을 순방하였고 특히 유럽은 전지역 38,000KM를 자동차로 여행하며 각 나라의 국민 삶의 질과 생활상을 직접 확인하는 열정을 보였다. 또한 독일의 아우토반 주행은 훗날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계기가 되었으며, 독일 루르지방 햄보른탄광

을 방문하여서는 막장까지 내려가 보는 등 광부의 노동 현장을 확인하고 독일정부의 청에 의해 즉시 박정희대통령에게 서독 광부 파견을 건의하였으며 독일 의료계의 요청에 의해 간호사까지 파견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1966.10.3 방미를 환송하는 많은 출영객

광부와 간호원 파견에 의한 외화 획득이 당시 추진되었던 제1차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큰 힘이 되었다.

10.23 귀국 기자회견에서 윤정은 “이번 여행에서 유럽보다는 미국이, 미국보다는 아시아가, 아시아보다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할 나라도, 대한민국이 지배할 나라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왔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2차 외유 1964.6.18-12.31

한일회담 반대 시위 격화와 당 내분에 책임을 지고 당 의장을 사퇴하고 다시 주변의 권유와 본인의 결심에 따라 자의반타의반 2차 외유를 떠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추진하여 조국근대화에 중요한 역할과 실적을 쌓는다. 한달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키신저 정치경제 하계

과정을 다니면서도 워싱턴의 정계 주요 인사들과 활발한 접촉을 갖는다

특히 도드 미상원외교분과위원장을 만나 월남 파병 주요 사안에 대해 사전협상을 갖는 등 한국군 월남파병을 성사시켰으며 이 외에도 미국 잉여농산물의 적시 지원을 타결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한다.

또한 미주리주 인디펜스시 트루만도서관을 방문하여 트루만 전 대통령과 면담을 가지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 트루만대통령은 “한국인들에게 미안하다, 6.25전쟁시 영국의 압력으로 통일을 못했다”는 비화를 밝히기도 하며, JP에게 정치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덕담을



1966.10.3 방미시 공항에서 박영옥여사가 환송 나온 딸 예리양, 아들 진 군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주었다. 트루만은 호랑이와 사육사의 관계를 들어 “국민을 호랑이로 알라. 호랑이는 사육사가 목을 문질러 주면 눈을 깜빡깜빡하고 표정이 없다가 뭔가 비위에 거슬리면 사육사도 물어 죽인다. 이는 국민과 지도자와 상관관계와 같다. 국민을 위해 잘 봉사해야한다.”는 말을 하였다.



1966.10.3 방미시 환영 나온 교민들이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오른쪽은 정일권 주미대사

■ 격동기 외유 (1965.10-1971.6)

박정희대통령의 귀국 지시로 외유 7개월만에 귀국한 후 1965년말 공화당 당의장에 복귀하여 1968년 5월 ‘국민복지회’사건으로 정계를 은퇴하기 전까지 미국과 이탈리아 등을 방문했으며, 특히 월남에 파병한 한국군부대 격려와 위문에 힘썼다.

1966년 10월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웨스트민스터대학 초청 강의로, 윈스턴 처칠 전 영국수상이 ‘철의 장막’을 연설한 이 대학에서 JP는 중국을 빗대어 ‘죽의 장막’이란 말로 “자유를 향한 아시아의 길”을 연설하여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1967년 양대 선거 후유증과 1968년 김신조일당 무장공비 사건, 미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예비군 창설 등으로 복잡한 시국 상황에서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의원직을 비롯 모든 공, 사직에서 사퇴, 사실상 정계를 은퇴하게 된다. 박대통령을 비롯 모든 당직자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을 만든 사람이 공화당을 떠나면 어떡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목수가 자기 살 집을 짓는 것은 아니다.”는 유명한 목수론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3선 개헌을 앞두고 박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을 끝내 거스르지 못하고, 은퇴 1년만에 다시 복귀하게 된다.